

‘미소와 보살핌’ 신도를 고객처럼

서울 봉은사 중무원·업무환경 ‘아름다운 변신’

지난 주말 각성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의를 듣기 위해 서울 봉은사를 처음 찾은 김재남(45·서울 송파구)씨는 일주일에 들어 서자마자 깜짝 놀랐다. “봉은사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부드러운 말과 함께 중무원이 환한 미소로 인사했기 때문이다.

각성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좌가 끝나자, 사찰 측은 참석자에게 오늘 법문이 재미있었는지, 다음 법회시간에는 무엇을 듣고 싶은지 등을 묻는

평가 설문지를 ‘친절이 곧 포교’ 신념

박용철(32)씨

“지난 번 평가지에 ‘뒷자리에 있는 법문이 잘 안 들린다’고 써내자 즉각 마이크가 교체됐고 옆에 설비를 점검하더라”며 “내 평가가 반영돼서 그런지 봉은사 신도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동적인 입장에서 법문을 듣기만 하던 김 씨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로웠다.

봉은사(주지 원혜)가 ‘신도제일’ 사찰로 변하고 있다. 강남포교의 1번지를 담당하는 봉은사가 ‘신도’를 ‘고객처럼’ 모시며 지역포교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03년부터 스마일 운동을 전개해온 봉은사는 중무원의 복장을 통일하고 명찰패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사무직, 접

수원, 경비담당 및 주차요원에 이르는 모든 중무원에게 철저한 친절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 4월에는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해 친절도를 모니터링하고 우수중무원 표창식도 열었다.

뿐만 아니라 전 중무원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직의 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지난 5월부터는 경영분야의 인사관리 시스템인 직무분석제도를 도입, 외부 전문컨설팅사의 자문을 받은

직무분석이

일반 기업이나

중양중무기관

에서 시행된 적

은 있지만 사찰에 도입된 것은 처음이다.

봉은사의 이같은 변화에 대해 신도들은 ‘놀랍다’는 반응이다. “사찰에 대한 주인의식과 불자로서의 자부심을 키우게 됐다”는 것이다.

“이제는 사찰에도 ‘친절 마인드’가 도입돼야 할 때”라는 봉은사 주지 원혜 스님은 “타성적으로 처리하던 사찰업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고, 신도를 소중히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봉은사의 표준화된 사찰중무 시스템과 ‘친절 마인드’가 각 사찰에도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

이은비 기자 reny@buddhapia.com

청소년 종교 ‘학교 영향’ 크다

종자연, 10개 종교 사학 학생설문... 세미나도 개최
 의식·헌금 강요 거부감 높아, “인권 차원 접근 필요”

◇불교학교의 불자 21% 뿐

종교사학 중·고교의 종교비율에서 3대 종교 중 불교가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은 ‘NGO리서치에 의뢰해 서울 시내 소재 종교사학 중·고교 80개교(불교6, 개신교61, 가톨릭5, 기타8) 가운데 10개교(불교1, 개신교8, 가톨릭1)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교육에 관한 설문’에서 이 같이 드러났다”고 7월 4일 열린 ‘종교자유와 인권’ 세미나에서 밝혔다.

설문에서 불교는 8.3%, 개신교 32.1%, 가톨릭 16.4%, 기타종교 5.2%, 무종교 37.9%로 나타나 총격을 주고 있다.

종자연 설문결과와 2005인구조사 결과를 비교해보면, 불교는 8.3%로 2005인구조사 당시 13.0% 보다 4.7%가 낮은 반면 개신교는 2005인구조사의 25.0% 보다 7.1% 높은 32.1%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는 개신교 학교에서 개신교신자의 비율은 36.0%, 불교 학교에서 불자는 21.2%, 가톨릭 학교에서 가톨릭신자는 32.3%로, 각 학교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2005인구조조사 결과보다 해당 종교인의 수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종교사학이 학생들의 종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교와 기독교 종교사학의 수적 차이가 곧 청소년 종교비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는 개신교 학교에서 개신교신자의 비율은 36.0%, 불교 학교에서 불자는 21.2%, 가톨릭 학교에서 가톨릭신자는 32.3%로, 각 학교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2005인구조조사 결과보다 해당 종교인의 수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종교사학이 학생들의 종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교와 기독교 종교사학의 수적 차이가 곧 청소년 종교비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는 개신교 학교에서 개신교신자의 비율은 36.0%, 불교 학교에서 불자는 21.2%, 가톨릭 학교에서 가톨릭신자는 32.3%로, 각 학교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2005인구조조사 결과보다 해당 종교인의 수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종교사학이 학생들의 종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교와 기독교 종교사학의 수적 차이가 곧 청소년 종교비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결과는 개신교 학교에서 개신교신자의 비율은 36.0%, 불교 학교에서 불자는 21.2%, 가톨릭 학교에서 가톨릭신자는 32.3%로, 각 학교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2005인구조조사 결과보다 해당 종교인의 수가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종교사학이 학생들의 종교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불교와 기독교 종교사학의 수적 차이가 곧 청소년 종교비율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결론을 보여준다.

●종교자유 침해 행위(단위:%)

종교과목 복수이벤트	12.6
간부자격제한	13.8
헌금사용 미공개	18.2
종교의식 불원 특별	9.2
종교의식 참가강요	25.3

학내 종교의식 등 종교활동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학교 공식행사 등에서 특정한 종교의식을 진행했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고, 특정요일의 수업시간에 전학년 예배(법회)를 진행했다는 답변은 78.4%였다.

‘수업시간 전에 전체 기도(예배)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응답도 61.1%였고, ‘특정종교의 기념일 또는 행사시 헌금(보시)을 내게 한다’는 응답도 44.4%나 나왔다. 종교사학에서 사실상 종교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교자유 침해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종교자유 침해사례 중에서 ‘종교과목이 복수로 편성되지 않아 원치 않게 들어야 하는 경우(28.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종교의식 참가 강요(25.3%)’와 ‘헌금사용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18.2%)’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9.2%는 “종교의식 불참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수의 종교과목을 개설토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종교교육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교자유 침해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종교자유 침해사례 중에서 ‘종교과목이 복수로 편성되지 않아 원치 않게 들어야 하는 경우(28.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종교의식 참가 강요(25.3%)’와 ‘헌금사용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18.2%)’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9.2%는 “종교의식 불참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수의 종교과목을 개설토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종교교육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교자유 침해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종교자유 침해사례 중에서 ‘종교과목이 복수로 편성되지 않아 원치 않게 들어야 하는 경우(28.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종교의식 참가 강요(25.3%)’와 ‘헌금사용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18.2%)’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9.2%는 “종교의식 불참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수의 종교과목을 개설토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종교교육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종교자유 침해사례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들은 종교자유 침해사례 중에서 ‘종교과목이 복수로 편성되지 않아 원치 않게 들어야 하는 경우(28.9%)’를 가장 많이 꼽았고, ‘종교의식 참가 강요(25.3%)’와 ‘헌금사용의 결과를 알려주지 않는다(18.2%)’가 뒤를 이었다.

심지어 9.2%는 “종교의식 불참시 처벌”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복수의 종교과목을 개설토록 한 교육인적자원부 종교교육지침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향을 미치고 있음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한 이번 설문결과는 불교계의 근심을 한층 더 높였다. 서울시내 80개 종교사학 가운데 기독교계열이 66곳인데 반해 불교 종립학교는 6곳에 불과해, 종립학교를 늘리지 않는 한 청소년 포교의 현장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

손상훈 종자연 사무국장은 “법률에 따라 종교사학내에서의 진정한 종교자유 보장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방법”이라며 “개신교계열 종교사학의 선교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불교계가 나서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불교 종립학교내에서의 종교자유 보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교 종립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자유가 주어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개신교계열 학교의 선교행위를 막을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학내 종교자유와 청소년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부족 역시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학내 종교의식 등에 대한 불만이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증명한 이번 설문결과는 학내 종교자유에 대한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학교생활과 종교의식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서 학교생활의 만족도(47.6%)에 비해 종교의식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27.5%)가 현저하게 낮게 조사됐다. 또 종교의식 등이 불만이라고 답한 이들 중 ‘종교가 달라서’를 꼽은 학생들이 17.0%에 달했다.

종교강요 행위가 학교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을 방증하는 결과다. ‘학내 종교의식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56.1%)’고 응답한 점도 청소년들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볼 수 있다.

윤남진 NGO리서치 부소장은 “우리 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합의수준은 아직 일천하다”며 “건드리기 꺼려온 종교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강요 행위가 학교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을 방증하는 결과다. ‘학내 종교의식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56.1%)’고 응답한 점도 청소년들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볼 수 있다.

윤남진 NGO리서치 부소장은 “우리 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합의수준은 아직 일천하다”며 “건드리기 꺼려온 종교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강요 행위가 학교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을 방증하는 결과다. ‘학내 종교의식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56.1%)’고 응답한 점도 청소년들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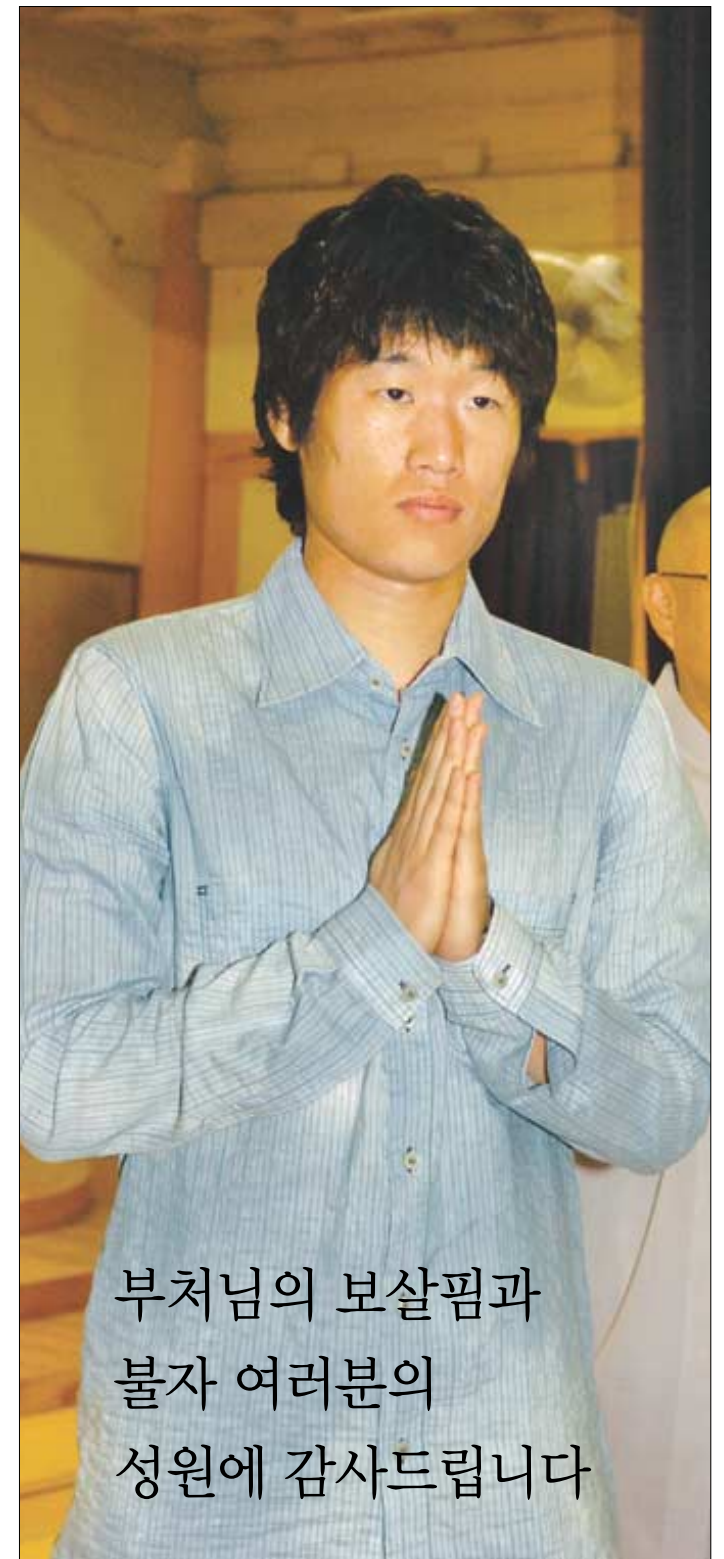
윤남진 NGO리서치 부소장은 “우리 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합의수준은 아직 일천하다”며 “건드리기 꺼려온 종교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강요 행위가 학교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을 방증하는 결과다. ‘학내 종교의식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56.1%)’고 응답한 점도 청소년들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볼 수 있다.

윤남진 NGO리서치 부소장은 “우리 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합의수준은 아직 일천하다”며 “건드리기 꺼려온 종교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교강요 행위가 학교생활을 만족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을 방증하는 결과다. ‘학내 종교의식 등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56.1%)’고 응답한 점도 청소년들이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볼 수 있다.

윤남진 NGO리서치 부소장은 “우리 사회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종교자유’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합의수준은 아직 일천하다”며 “건드리기 꺼려온 종교문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처님의 보살핌과 불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축구를 대표하는 박지성 선수(25·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7월 6일 화성 용주사를 참배했다.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은 ‘만(만)자’ 목걸이를 선물했고, 박지성 선수는 2006독일월드컵 스위스전 당시 입었던 유니폼과 팀 가이스트 사인볼 1개, 대한축구협회 공인 사인볼 30개를 용주사에 기증했다. 박지성 선수는 효행기념관 법당에서 용주사 스님 및 불자들과 함께 법회도 봉행했다. 부처님 앞에서 가지런히 두손을 모아 합장하고 있는 박지성 선수. 더 많은 기사 buddhanews.com

현대불교신문 구독신청 전화 한통화로
 ●구독료 전화요금합산 납부·자동이체 신청●
대표 (02)2004-8211~2

크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태운 스님 원자사해동선원장
 기획/부산불교 이야기 5면

도반의 향기 17면
 군포교 30년 전철호 거사
 친환경 여름휴가 가요 28면

간화선 지도자 양성과정 150여명 응모

간화선 지도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되는 ‘간화선 입문프로그램 지도인력 양성과정’에 출·제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 관계자는 “7월 4일부터 6일 오전까지 접수받은 결과 120여명의 출·제가자들이 접수했

다”며 “우편발송분을 포함하면 150여명 중 출가자는 75명, 재가자는 45명. 재가자 중에는 한의사, 교장선생님 등 전문직업군 중 오랫동안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우 기자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전태종 광수사 법당)

자등 승강 장치(등부 조정 작업)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사용합니다.

부모와 조상님께 등불을 밝힙시다

신상품

우란분절(백중)등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LED 인등

LED인등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